

석곡 이규준 연구의 성찰과 모색

¹김승룡, ²채 한

¹부산대학교 한문학과, ²부산대학교 한의학과

Review and Reflection of Studies on Gyojoon Lee

¹Seung-Ryong Kim, ²Han Chae

¹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s, Pusan National University

²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Gyojoon Lee is a prominent figure of Confucianism and traditional medicine representing southern region of Korea during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but studies on his achievements were just started merely a decade ago. We would provide foundation for the further multidisciplinary study on his legacy. We reviewed his chronology, written works, interactions with intellectual figures, and current studies on his works to provide foundations for more thorough research on his legacy. We found he has wide spectrum of studies in medicine, confucianism, literature, humanism and philosophy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Korean empire and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He wrote twenty five books in diverse fields and was found to have interactions with fifty seven figures with idea during his lifetime which need more detailed examination. Multidisciplinary studies on Gyojoon Lee is guaranteed for the future in depth study on his works including Buyunglon (theory of supporting Yang)

Key words : Gyojoon Lee, chronicle, review, history of ideas

I. 석곡을 바라보는 시각

石谷 李奎峻(1855-1923. 자 叔玄, 호 石谷先生·石山人·石山子·石谷山人. 이하 ‘석곡’이라고 부름)은 근대계몽기를 살아온 인물로서 한국 고전학사에서 낯선 인물이나, 그가 남긴 의학적 저술과 치료경험으로 인하여 한의학사에서는 근래 조망 받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석곡이 남긴 저술 전반을 검토해보면 그가 의학계를 넘어서 철학과 문학으로 일가를 이루었던 인물이라는 점에 놀라게 되고, 석곡의 의학과 처방을 계승하는 학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석곡에 대한 기억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석곡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는 것으로, 의학사에서 발굴된 지는 거의 40여년에 가깝지만, 다방면의 저술 전반을 검토한 연구는 고작 10여 년에 지나지 못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한국 고전학계의 학문적 편향에 기인한다.

강산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강산을 일궈나간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은 그가 나고 자란 강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 그 시대의 정신과 아픔을 읽는다. 더군다나 전환기적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생각과 말글 속에는 수없는 역사의 굴곡과 파장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석곡의 글을 읽으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체의 영혼이 느껴지는 이유이다. 석곡이 유학으로 사상의 중심으로 세우고, 서구의 신지식을 비판하며, 인간의 생명을 치유하고, 마음(心)을 키워드로 제시한 데에서, 우리는 급격한 문명전환기 속에서 시대와 인간을 고민했던 실천적 지식인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석곡은 1855년(철종 6) 11월 10일 慶尙北道 迎日郡 東海面 林谷里에서 출생했다. 그로부터 68세를 산 뒤 1923년 10월 11일 세상을 떠났으며, 현재 浦項市 長鬢面 竹井里 華柱山에 부인 金海 金氏와 같이 합장되어 있다. 김씨 부인은 석곡이 죽은 뒤 18년이 지나 1940년 세상을 떠났다(Fig. 1).

접수 ▶ 2018년 03월 28일 수정 ▶ 2018년 05월 23일 채택 ▶ 2018년 05월 21일
교신저자 ▶ 채 한,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 부산대학교 한의학과
Tel : 051-510-8470 Fax : 051-510-8470 E-mail : han@chaelab.org

석곡은 慶州 李氏로서 고려말기 李齊賢이 그의 증시조가 되며, 고조 李圭遜은 중2품 嘉善大夫를 지냈고, 증조 李福元도 가선대부에 이르렀으며, 부친 李德榮과 어머니 김해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¹⁾ 증조부 대까지 가선대부를 지낸 것을 보면 지방의 유력한 사대부집안이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조부와 부친 대에 특별한 품계가 제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조부 이후로 가세가 기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李圭峻 - 金海 金氏
- 泊鍾 - 雨潤 - 敏相
雨乙 - 峰相, 무(水+毋)相, 基相
- 惇鍾 - 雨苗
雨民
- 淳鍾 - 雨澤 - 朱相, 雄相
雨珍 - 孝相, 駿相, 武相
雨英 - 戊相
雨德
雨龍
雨福
- 女(皇甫燿, 永川) - 垣, 坪, 璋, 坂, 坤, 圭

그림 1. Family history of Gyojoon Lee. 石谷家系圖

그의 생애를 일견하면 30세까지의 행적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의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졌다는 고백을 보고나면,²⁾ 그의 대에 집안은 지방유지로 행세하지는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외부적 환경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의 기억과 증언을 확인할 만한 문헌 자료는 충분치 않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石洞에 우거하면서 石谷齋를 지어 학당을 열었던 것을 보면 스스로 가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된 듯하다. 석곡재는 단순한 학당에 그치지 않고, 『醫鑑重磨』를 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과 출판활동도 함께 했었고, 이를 통해 하나의 학단을 이루면서 지역의 젊은 엘리트들을 교육하고 독립된 학술유과를 이루어 나갔다. 현재 이규준의 학풍을 잇는 <素問學會(<http://www.somun.or.kr>)>가 존속하면서 그의 의학술을 계승하고 있는 것도, 그 학맥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려준다.

이처럼 오랜 굴곡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활발히 활동하는

학과로 유지되도록 한 요인은 무엇이며, 석곡은 과연 어떠한 학문적 전통을 지니고 교유하였었는지, 그리고 그가 펼친 의학이론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이다.

석곡의 마지막 제자인 李元世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에서 단서를 찾아본다면, 후학들이 석곡의 의술을 계승하는 학회를 조직하면서 ‘석곡학회’로 이름을 짓고자 할 때, ‘석곡’ 대신 ‘소문’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너무 크게 짓지 말기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 당시 학회를 조직하려는 이들이 대부분 한의사들로서 석곡의 큰 학문 가운데 고작 ‘의학’에만 한정된 식견을 갖고 실천할 뿐이니, 석곡이 남긴 『素問大要』에 근거해 이름을 지으면 그뿐이요, 그 이상의 이름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준다. 곧 석곡의 학문세계는 의학에만 한정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석곡 이규준에 대한 그간 연구의 궤적을 되짚어 보는 과정에서, 그가 어떻게 발견되고 활용되고 기억되었는지, 그리고 당시의 삶과 남긴 문헌들, 그리고 지성사적 교류를 年代記的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석곡의 사상적, 의학적, 문학적 면모가 드러날 것이며,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석곡의 과거를 돌아보는 내내 가지게 된 느낌은, 의학사적 자리를 넘어서 19~20세기 초 한국 근대지성사의 맥락에서 자리매김할 주요한 지식인이라는 점이었다. 그간 잊혔던 학맥을 찾아나서는 것은 공부하는 학인으로서 갖는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카메라의 앵글을 달리하면 새로운 풍경이 아름답게 눈에 들어오는 법이다.

II. 본론

1. 석곡에 대한 성찰들,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오류투성이일 가능성이 많다. 흔히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어루만지듯이, 각자의 시각에서 익숙한 사물에 빚대며 대상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대를 달리하는 고전적 인물을 살

1) 曹圭喆. 『石谷散稿』, 「墓碣銘」

2) 曹圭喆. 『石谷散稿』, 「祭從弟圭脩文」

피는 것은 더욱 그 예외가 되지 못하며, 석곡에 대한 수많은 연구자들의 성과를 검토하는 이유가 된다. 대부분 시기적으로, 혹은 관심 분야에 따라, 더러 접근 방법에 따라서 석곡을 제각각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후학들은 그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힘겹지만 하나씩 퍼즐을 맞추어가며 ‘은전한 석곡’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석곡에 대한 연구를 연대기적으로 구분하여 몇 단계로 살펴보고자 할 때 확연하게 구분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이전 성과를 토대로 논의를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논자들이 재차 등장하고 있기에 확연히 끊어서 다루기는 쉽지 않다. 이 방법은 기존 연구의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편의적인 선택일 뿐이다.

석곡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처음 시작되어 최근까지 학술논문 33편, 학술회의 발표요지 18편, 신문연재 1종(62편), 다큐 제작 1편이 이루어졌다. 석곡의 문집인 『석곡산고』가 1960년대에 필사로 전해지다가 1981년에 석판본으로 간행된 뒤, 짧은 기간에 이뤄진 연구사를 생각하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풍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연대기별로 정리하면(표 1), 1970~80년대에는 학술논문 3편(석사1, 박사1 포함), 1990년대에는 학술논문 3편(석사1 포함), 2000년대에는 학술논문 18편(석사2 포함) 및 발표요지 1편, 2010년대에는 학술논문 10편(박사2 포함), 신문연재 1종(62편), 발표요지 18편 그리고 다큐제작 1편이다. 거칠게 조감하더라도, 석곡에 대한 연구는 최근 본격화했음을 알 수 있으며, 석곡을 전문적으로 다룬 학위논문은 1970년대 석사 1편, 2000년대 석사 3편, 2010년대 박사 1편뿐이다.

석곡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연대별로 고찰하여, 석곡에 대한 기억과 연구가 거친 궤적을 살펴본다면, 1970~80년대는 그동안 잊힌 석곡의 ‘발굴’이 이루어졌고, 1990년대는 ‘소문대요’의 독창성이 발견되었으며, 2000년대는 석곡의 삶과 사상, 그리고 ‘부양론’을 연계하여 파악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석곡을 ‘살아있는 고전’으로 재발견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김적과 홍원식에 의해 처음으로 석곡의 생애와 학설이 조망되었다(김적·홍원식, 1978). 김적은 이를 학위논문으로 재차 발표하고(김적, 1979), 그로부터 수년 뒤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로 수렴하였다(김적, 1981). 비

로소 석곡은 의학사에서 ‘발굴’된 것이다.

1990년대는 석곡의 주요한 의학적 성과인 ‘『素問大要』’가 포착된 시기이다. 『소문대요』가 지닌 독창성을 주목하고(김중환, 1992), 조선후기에 『黃帝內經』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사례로 석곡을 살펴보았으며(김남일, 1996), 석곡의 ‘扶陽論’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황원덕, 1996). 주지하듯 부양론은 석곡의 주요한 의학이론으로, 이 시기를 통해 석곡은 ‘독창적 의학이론가’로 조금씩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는, 지난 시기에 거론된 ‘부양론’에 대하여 탐구가 지속되었는데(황원덕, 2004), 석곡의 사상적 특징인 心氣論과 의학 이론인 부양론 사이의 관계를 구명하기 시작하면서 부양론 기저에 놓인 세계관과 인간관의 면모가 조금씩 밝혀졌다(권오민, 2003; 2004a). 특히 『석곡심서』에 쓰인 여러 논의들과 연계하여 ‘부양론’을 설명함으로써, 석곡의 의학이론이 단선적이지 않고 일련의 체계적 논리 하에 추론된 것임을 드러내었으며(권오민, 2004b), 여전히 『소문대요』는 논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김중환, 2004; 전초진, 2006; 김창건·윤창열, 2006; 김창건, 2007). 이는 한국의학사에서 『황제내경』을 다루었던 희귀한 경우였기에 당연한 일이었다(김남일, 2004; 강연석·김남일, 2008).

2009년에 들어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대대적으로 한국 의서를 수집하고 역주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석곡의 주요 문헌인 『의감중마』, 『소문대요』, 『석곡산고』, 『석곡심서』, 『포상기문』 등이 2년여에 걸쳐 번역 간행되었다.³⁾ 이는 그간 피상적, 파편적으로 이뤄지던 석곡의 부양론을 본격적으로 살피는 중요한 계기이자 변곡점이 되었다. 안상우의 문헌발굴과 권오민의 연구를 주축으로 진행된 일련의 성과들은 실제 역주작업과 병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석곡의 생애와 사상이 의학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임이 밝혀졌다(권오민 외, 2009a; 2009b; 2009c; 2010; 성호준, 2009). 아울러 석곡의 『의감중마』에 나오는 藥性歌와 본초경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는데(오재근 외, 2009a; 2009b), 부양론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근거로서 석곡의 본초학에 대한 탐색이 이뤄진 것이다. 특기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인물로 석곡이 포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이제 석곡은 의학

3) 권오민, 남성우, 김진경 옮김. 『국역 석곡산고』.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2009. 안상우, 권오민, 노미주 옮김. 『국역 의감중마』(목판본).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2009. 안상우, 권오민, 김진희 옮김. 『국역 의감중마』(필사본).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2009. 안상우, 이규필, 전병철 옮김. 『국역 석곡심서·포상기문』.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2009. 안상우, 정창현, 백유상, 장우창 옮김. 『국역 소문대요』.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2010.

사의 인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의 역사로서 자리매김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석곡에 대한 그간의 논구들을 매듭짓는 성과가 제출되었는데(권오민, 2010c), 석곡의 인간학과 의학론 사이의 접점을 찾아 나선 결과, 석곡의 氣一元論, 心論 중심의 心性情同一論은 의학론인 扶陽論의 陽火一元論, 火爲氣論, 陽常不足陰常有餘論, 心火降水乃升論, 陽反上陰反下說 등과 같은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유학과 의학 사이의 관계를 『대학』, 『중용』 등의 경전을 통해 논의하였으며(성호준, 2012a, 2012b, 2014, 2017), 학술사적 차원에서 석곡의 ‘正心’을 점검하여 시대인식을 분석하기도 했으며(강지은, 2016), 석곡의 한시를 통해 그의 문학적 정감을 살피기도 했다(이준규, 2012; 신상구, 2017). 무엇보다 석곡의 의학이론을 임상적 응용에 대한 재확인이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소문학회 활동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임상적 가치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한 임상사례의 보고가 신문지상을 통해 보고되었다(김태국, 2011~2012).

석곡의 현대적 의미는 이 시기를 거쳐 학제적 그리고 국제화의 방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다. 부산대학교 한의학과와 한문학과 학제간 프로젝트인 전통의학지식사업단이 주체가 된 두 차례의 심포지움은 기존의 의사학, 의학이론, 임상 중심에서 보다 확대된 접근을 시도하여 한문학, 지역문화, 학술유과, 양생학, 심리학, 마음의학, 마음치료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조망을 통해 석곡이 지닌 다양한 빛깔을 확인할 수 있었다(2013; 2014). 또한 포항의 ‘역사인물’로 선정되면서 문헌학, 전통학, 한시학, 의사학 방면으로도 논의되었으며(2014), 소문학회의 주관으로 석곡의 유학, 문학, 의학을 재재조명하기도 하였다(2017). 이제 석곡은 의학적 인물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학제적 모색을 거쳐야 하는 ‘하나의 古典’, 다양다기한 측면을 보이는 ‘석곡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석곡은 그간 잊힌 인물이었다가, 학문적 조명을

통해 『소문대요』 속의 부양론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부양론의 사상적 기반에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 폭넓은 학문세계가 놓여있음도 확인되었다. 이제 석곡은 살아있는 ‘고전’으로서 보다 심도 있는 다각적 조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⁴⁾

2. 네가지 과제와 새로운 모색의 근거

엄밀히 말해 석곡 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의감중마』 등 주요 문헌이 번역되었지만 그의 문헌 전체를 총괄하진 못하고 있으며, 그의 생애와 교유인물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부양론에 대한 임상적 검증을 통해 살아있는 전통으로 명명하기에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고는 다음 네 가지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근거를 준비하기로 한다.

1) 석곡의 삶 대한 연보적 再構

그동안 석곡의 삶은 주로 「묘갈명」과 「제문」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으나, 석곡의 생평에 대해서는 여전히 희미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석곡산고』, 『석곡심서』, 『포상기문』 등을 재검토하고, 그 내용을 연보적으로 그의 삶을 재구하면 표 1과 같다. 이에 의거하면 석곡의 학문은 31세를 전후로 시작되며,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45세에 석곡재를 지으면서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47세부터 10여년간 진행된 충청도, 금강산, 한양 유람 등을 통해 다양한 인물들과 교유하며 자신의 학문을 성장시키고 있다. 특히 31세 때 郭鍾錫과의 만남과 편지, 47세 徐贊奎, 田愚, 李存堧 등과의 만남, 48세 許薰과의 만남, 56세 宋秉珣과의 만남 등은 그에게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기에, 지성사적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석곡의 삶을 연보적으로 재구하는 순간, 석곡의 삶은 한 폭의 파노라마가 되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4) 최근 James Flowers는 석곡을 정치사상가이며 작가로서, 의학적 생각은 사회적, 정치적 저항의 문맥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James Flowers, 「Reconfiguring East Asian Modernity」, 「2017 석곡 이규준 재조명 학술 포럼 자료집」, 소문학회, 2017). 비록 문제제기 수준의 제시였지만, 의학사를 넘어 지성사 차원에서 석곡의 위치를 비정하려는 시도로서 흥미롭다. 아울러 강지은이 20세기 초 한국 유자의 시대인식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석곡의 경학사상을 분석하고 있는 점도 흥미로운 시사를 던져준다(강지은, 「20세기 초 한국 儒者의 시대인식 - 석곡 이규준의 ‘正心’ 해석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문화, 2016;75:269-302). 한 인물의 분과적 생각을 그와 그를 둘러싼 세계와의 전체 맥락 안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고전’으로서의 석곡학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표 1. Chronology of Gyoojoon Lee. 石谷年譜抄

연도(간지, 나이)	행력 사항	관련자료 및 비고
1855년 (철종6, 을묘, 1세)	11월 10일 출생. 본관 慶州. ○고려 益齋 李齊賢의 17세손. ○고조 李圭遜은 종2품 嘉善大夫, 증조 李福元 嘉善大夫, 부 李億榮, 모 金海 金氏. ○경상북도 迎日郡 東海面 林谷洞 출생.	석곡의 자는 叔玄, 호는 石谷先生·石山人·石山子·石谷山人 등으로 불렸음.
1874~1884년 (20~30세)	행적은 뚜렷하지 않음. ○10여 년간 독학한 것으로 보임.	
1885년(기유, 31세)	12월. 郭鍾錫에게 편지하여, 자신이 10년간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논의한 것에 고마워함. ○석곡은 가야산을 다녀오는 동안 곽중석을 만나 天圓地方說, 心即理說, 外夷中國說, 湖學嶺學說, 時人古聖說 등을 토론함.	<上參贊郭俊宇(鍾錫)先生>, <入伽倻山記>
1899년(기해, 45세)	4월 石洞書齋(혹은 '石谷書堂', '石谷齋'라고 부름) 지음. ○가을, 낙성식.	<石洞書齋元韻>, <石谷書堂記>
1900년(경자, 46세)	李公岐(克齋)의 제문을 짓고 權景畦 등과 제사를 올림. ○이공민은 李珥와 宋時烈을 근원으로 하여 洪直弼과 書贊奎를 스승으로 모셨음.	<祭克齋李先生(公岐)文>
1901년(신축, 47세)	3월 14일~5월 11일. 한양을 여행함. ○서찬규, 徐丙五, 田愚, 李晚求, 李存奩 등을 만나 학문을 토론했음. 특히 전우와 六藝/古禮를 논의하고 이준후와 論孟問目을 강론함.	<西遊路程記>, <京都志>
1902년(임인, 48세)	4월 7일~5월 23일. 금강산을 유람. ○鄭先祚와 동행하였음. ○柳震鎬에게서 『典禮通考』, 『儀經傳通解』 진본을 열람함. ○許薰을 만나 『儀禮』(古本)을 열람함.	<金剛日記>
1905년(을사, 51세)	4월. 徐贊奎의 제문을 짓다. ○서찬규, 1월 22일 별세. 석곡은 자신을 그의 문하생으로 자처했음.	<祭徐都事臨齋先生文>
1906년(병오, 52세)	4월. 李存奩의 눈병에 대한 치유방법을 알려줌.	<答李朗山(奩)>, <病錄>
1908년(무신, 54세) 이후	교남교육회 朴晶東과 李根中에게 편지를 씀. 공자사상을 중심에 놓고 서양 역법과 기술을 보조로 취하라고 권유.	<與嶠南教育會員朴晶東李根中等>
1911년(신해, 56세)	4월 28~6월 13일. 충청도 유람. ○林奉植, 皇甫濬, 崔庠錫 등과 유람함. ○宋秉珣을 만나 自靖之道를 물었고, 禹汝七, 文樸, 李基魯, 李存奩 등을 만남.	<湖遊日記>
1912년(임자, 57세)	3월 宋秉璫과 宋秉珣을 추모하는 시를 지음.	<追輓心石齋兄弟>
1913년(계축, 58세)	8월 20일~10월 3일. 두 번째 충청도 유람. ○盧相稷 등을 만나고, 闕里祠를 찾음.	<湖上再遊日記>
1914년(갑인, 59세)	7월. 從弟 李圭脩의 제문을 짓다. ○석동에 우거하기 이전 십여년간 가족이 흩어졌음을 언급함.	<祭從弟圭脩文>
1917년(정사, 62세)	3월. 孫大岩의 제문을 짓다. ○1916년 석곡은 그와 理氣論을 토론했었음. 석곡은 그에게 후생으로 자처함.	<祭大岩孫先生文>
1923년(계해, 68세)	10월 11일. 세상을 떠남.	
1924년(갑자)	長鬢面 竹井里 華柱山 西坐 언덕에 장사지냄.	
1940년(경진)	아내 金海 金氏가 세상을 떠나, 석곡과 합장함.	
1981년(신유)	후손 李雨乙 『石谷散稿』 간행.	재전제자 孫晉圭의 서문 ○曹圭喆의 墓碣銘.

2) 석곡학으로서의 저술 문헌들

석곡의 이른 저술로 간행연대가 확실한 것은 1896년에 쓰인 『대학문목의대』, 『중용문목의대』, 그리고 1900년에 쓰인 『논맹문목의대』, 『구장요결강목』 등이며, 필사형태로 남

아있는 저술 가운데 학습과정에서 집필된 것으로 보이는 책들도 있다. 현재 본고가 서책으로 확인한 저술은 25종으로서(표 2) 경학서를 비롯해 의학서 및 시문집을 포괄한다.⁵⁾ 경학서는 대체로 유학서에 집중되어 있는 바, 그의 학문적 중지가 유학임을 보여준다. 유학서는 사서를 비롯해 『毛

5) 이밖에 『典禮』(1책), 『孝經』(1책), 『唐宋古詩』(1책), 『後千字』(1책), 『小學·稽善』(1책), 『道德經』(1편), 『明心寶鑑』(1편), 『本草』(2편) 등의 저술이 있다고 하지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현재 석곡의 저술은 포항시 석곡도서관에 소문학회에서 기증한 책들이 소장되어 있고, 석곡 가장본은 방계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 본고는 석곡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詩, 『尙書』, 『周易』, 『春秋』, 『儀禮』, 『周官』(周禮) 등을 다루고 있는데, 漢唐의 주석을 비롯해 송대의 주석도 아우르면서 의문나는 것은 수정하는 방식을 거치는 ‘刷管’이란 독특한 주석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석곡은 고전을 그대로 추송하지 않고, 자기화하여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동의보감』과 『황제내경』을 재구성하여 『의감중마』

와 『소문대요』를 편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이외에도 『古今十九史』, 『通鑑』 등과 같은 역사서 뿐 만 아니라 『九章要訣綱目』 등 산학에 대한 저술도 있으며, 자신이 독서했던 흔적을 『聞見錄』으로 남겨두기도 했다.⁶⁾ 이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때 온전한 석곡학의 기반이 확립될 것이다.⁷⁾

표 2. Literatures of Gyoojoon Lee. 石谷著述目錄

	서명	연대	판본	비고
1	綱鑑會要 (1책)	?	필사	권91만 존재함. *석곡 저술인지 불명.
2	曲禮幼肄題 (1책)	?	필사	大邱. ○序, “有童子問於石谷叟曰”로 시작.
3	曲禮小節 (1책)	?	필사	○책 중간에 陳淳의 『性理字義』가 삽입되어 있음. ○孝經章義가 덧붙여짐. ○“石谷家藏”
4	周官記兼注 (4권4책)	?	필사	○李峻 後序. 周禮官制의 후세효용성에 대한 문답.
5	論語集解刷管 (3책)	?	필사	표제가 ‘增補論語集解’, ‘論語集解刷管’ 등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책임. ○論語諸說訂疑(1책) 필사본이 별책으로 덧붙여짐. ○1926년 신연활자로 간행된 ‘쇄관’총서로 여겨지나 간지가 불명하여 이곳에 둠.
6	大學問目疑對 (1책)	1896	필사	“丙申冬 國子先生徐相鳳下庸學問目於鄉士, 其略云云.” ○中庸問目疑對, 論孟問目疑對와 같이 필사본으로 전한다.
7	中庸問目疑對 (1책)	1896	필사	“丙申冬 國子先生徐相鳳下庸學問目於鄉士, 其略云云.” ○大學問目疑對, 論孟問目疑對와 같이 필사본으로 전한다.
8	古今十九史略 (1권)	1897?	필사	“石谷重校” ○권1에 그침.
9	政術問目 (1권)	1897	필사	“丁酉夏學部下鄉士.”
10	新教救世文 (1권)	1897?	신연활자	古今十九史略/政術問目/聞見錄 등이 1책으로 있음. 판본으로 보아 후대의 것으로 보임.
11	聞見錄 (1권)	1897?	필사	許傳, 朱熹, 李滉, 李珣, 金澤榮 초록.
12	論孟問目疑對 (1책)	1900	필사	“庚子八月, 成均館長李鍾元下論孟問目於鄉士, 其略云云.”라고 했다. ○大學問目疑對, 中庸問目疑對와 같이 묶여 전하며, 부록으로 朱子晚年定論이 덧붙여짐.
13	九章要訣綱目 (3권 1책)	1900	필사	序, “李圭峻書于石谷之游藝堂”
14	黃帝內經素問大要 (4권 1책)	1906	목판	密陽琴川新刊 ○石谷山人(金善久的 권유) 간행. ○黃帝素問大要題誌(1904), 素問大要後識(李鍾淳, 1906)
15	儀禮注疏節要 (8권 4책)	1914	필사	儀禮節要序(1914) ○‘刷管’의 형식을 밝히고 있음. ○儀禮訂疑(上) 별책이 있는데, 儀禮注疏節要的의 부록인 듯함.
16	春秋傳會粹 (6권 3책)	1915	필사	석곡은 春秋와 관련해 春秋經正文, 春秋左傳詳節句解(권지1/2/3/18) 등도 저술했음.
17	浦上奇聞 (1책)	1918	신연활자	張麟年 序 ○崔海潤 跋(金善久的 권유) ○필사본 2종. 1종은 ‘補遺’ 덧붙여짐.
18	儀禮訂疑 (2권 1책)	1922	목판	大邱.

6) 『문견록』은 석곡의 독서편력을 확인시켜준다. 이를테면 朱熹, 李滉, 李珣는 물론 근대 문장가였던 金澤榮의 글을 읽고서 초록해 두었다. 근대초기 지식인계에 김택영은 하나의 공안이었다. 그를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방식의 의견 제시를 통하여 많은 유림들이 논쟁에 참여했는데, 석곡도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사상적 지향과 스펙트럼이 이른바 유림의 주류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7) 참고로 석곡의 제자인 李元世는 석곡의 처방을 모아 『新方新編』(서울:대성출판사, 2001)을 엮었고, 부산대학교에 석곡의 편지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19	醫鑑重磨 (6권 3책)	1922	목판	石谷齋. ○李鍾淳 後識.
20	石谷心書 (1책)	1922	신연활자	安熙濟 간행(1917, 安熙濟가 간행 권유) ○石洞書堂學規, 大學句吐俗解, 中庸句吐俗解, 俗解句吐法, 句吐約法 덧붙여짐.
21	經髓三篇 (3권 1책)	1923	목판	石谷齋 ○필사본 1종(1924). 석곡 문하생 달성 徐聖孝의 만사 덧붙여짐.
22	周易注傳刷管 (6권 1책)	1926	신연활자	大邱, 在田堂書舖. ○周易音義를 덧붙임. ○周易注傳刷管 필사본 2종, 周易 원문 필사본 1종이 있음.
23	尙書傳疏刷管 (8권 1책)	1926	신연활자	大邱, 在田堂書舖. ○尙書正義鈔演을 덧붙임. ○현토가 달린 書經(권지1~10) 원문 필사본이 있음.
24	毛詩傳注刷管 (10권 1책)	1926	신연활자	大邱, 在田堂書舖. ○毛詩傳疏校勘記, 毛詩疏義訂疑 등이 덧붙여짐. ○필사본(10권 5책)은 표제가 毛詩傳審定/毛詩傳注/毛詩注疏 등으로 난잡함.
25	石谷散稿 (1책)	1966 以前	필사	*1968년, 孫晉圭, 崔鍾洛家에서 목격. 손진규는 鄭萬載(석곡의 제자)의 제자. 이후 1981년 석판본 간행.

3) 교유 인물을 통한 당대 지성사 구성

문헌상 확인되는 최초의 교유는 31세 때 곽종석을 만난 일이며, 이를 시작으로 석곡은 자주 여행을 떠난다(표 3). 문집에 수록된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47세에 한양을 여행하고, 48세에 금강산을 유람하였으며, 56세에 충청도를 여행하였고, 58세에 다시 충청도에 다녀온다. 석곡이 누구를 만나고 교유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의 주변의 일상적 삶 모두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곡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문헌적으로 파악되는 인물들에 대한 주의는 필수적인데, 석곡의 학문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무엇을 지향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⁸⁾

석곡은 대구의 徐贊奎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으면서, 李珥-宋時烈-洪直弼-徐贊奎/韓運聖으로 이어지는 영남의 기호 학맥과 이어진다. 金興洛에게 수학했던 朴載憲과 학문적으로 관계를 맺었고, 李震相의 제자인 郭鍾錫과 心卽理說을 토론하며 반박했었는데, 석곡이 자주 찾았던 李存堧도 이진상의 제자였다. 任憲晦의 제자인 田愚와도 六藝를 두고 논의를 했었고, 훗날 전우의 제자 柳永善은 『석곡심서』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전우의 스승인 임헌회는 홍직필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공교롭게도 석곡의 스승인 서찬규의 스승도 홍직필이다. 같은 학맥일지라도 토론을 통해 자

신의 학문적 입장을 정리해나갔던 것이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항일의 기치를 걸었던 曹兢燮, 文永樸, 宋秉珣, 安熙濟 등과의 교류는 석곡의 정치적, 민족적 성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조공섭은 곽종석의 제자이고, 석곡의 묘갈명을 쓴 曹圭喆은 조공섭의 일가붙이이다.

뿐만 아니라 이황의 제자인 柳成龍의 후손 柳震鎬를 만나 『전례통고』, 『의례전직해』 등을 빌려보았고, 李灑를 許傳을 계승한 許薰을 만나 『儀禮』(古本)을 열람하면서, 석곡 자신의 예학을 다져나갔다. 추후 석곡은 석동서원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心論을 토론하며 부양론의 사상적 기반을 일구어나갔다.

끝으로 『포상기문』의 서문을 써준 張麟年은 중국 南通의 지식인인데, 어떻게 타국의 지식인과 연결되었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문견록』에서 金澤榮의 문집 속에서 「泗陽書室記」를 뽑았다는 기록을 보고서 이해될 수 있었다. 김택영의 후원자였던 문영박을 통해 김택영의 문집을 독서하고, 그를 통해 남통의 장인년과 교류하게 된 것인 듯하다. 장인년은 김택영이 남통에서 만났던 청년 엘리트였고, 그와 찍은 사진이 아직 남아있다.⁹⁾ 소외된 송도인맥과 석곡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자료들이다. 그의 인물교류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근대초 한국지성사의 한 부분을 복원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아래에 『석곡산고』를 비롯해 석곡의 저술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표로 제시한다.

8) 그런 점에서 권오민의 『석곡산고』에 대한 번역 연구는 좋은 시사를 준다(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 이규준의 『石谷散稿』 번역연구(1)」,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22(3):161-185. 권오민, 남성우, 안상영, 박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 이규준의 『石谷散稿』 번역연구(2)」,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22(4):153-166) 저자들은 문집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상적 경향을 특징적으로 포착하여, 석곡의 교유가 갖는 학술적 면모를 밝혀낸 바 있다.

9) 김승룡. 「근대계몽기 김택영의 남통 생활에 대한 소고」, 대동한문학. 2012;36:365-404.

표 3. List of Interactions with Figures of Idea. 石谷交遊人物錄

	이름	관련자료	비고
1	郭鍾錫	<上參贊郭俛宇先生>(散稿) <伽倻山記>(散稿)	*李震相의 제자
2	權和中	<賀權和中萱堂晬宴>(散稿)	*성명미상
3	金基洙	<送金塔洙金基洙>(散稿)	
4	金鵬老	<輓金查兄鵬老>(散稿)	*査兄間
5	金司果	<輓金司果>(散稿)	*성명미상
6	金塔洙	<送金塔洙金基洙>(散稿)	
7	金琮鉉	<與南漁金琮鉉飲餞(觀江景時)>(散稿)	*호 南漁
8	金進士	<輓金進士然然翁返樞宣城家山>(散稿)	*호 然然翁 ○성명미상
9	羅鳳綸	<詩契日因行鄉飲酒禮>(散稿)	
10	盧相益	<次大訥齋風雷堂韻>(散稿)	*호 大訥
11	盧相稷	<盧訥齋莊上>(散稿)	*자 致八/호 訥齋
12	文永樸	<與曹仲謹文章之遊大巖山亭>(散稿) <湖遊日記>(散稿)	*자 章之/호 壽峰/본관 達城 ○문박의 집에서 曹兢燮/李基魯 만남.
13	閔竝浩	<閔竝浩著菊花論要余品評謾書以酬>(散稿)	*국화시 품평
14	朴淵祚	<與朴淵祚>(散稿)	
15	朴品東	<與嶠南教育會員朴品東李根中等>(散稿)	*교남교육회 발기인
16	朴載憲	<同朴國斌李世卿講論石洞齋>(散稿) <答朴載憲>(散稿) <答朴國斌>(心書)	*자 國斌/호 道山/본관 務安 ○金興洛에게 수학/ 퇴계학맥
17	徐丙五	<西遊路程記>(散稿) <地球問答>(奇聞) <輓詞>(散稿)	*호 石齋 ○석곡이 그림 배우려 함. ○석곡을 위한 만사를 지음.
18	徐子源	<祭徐進士子源文>(散稿) <西遊路程記>(散稿)	*서찬규의 아들
19	徐贊奎	<輓都事徐先生>(散稿) <祭徐都事臨齋先生文>(散稿) <西遊路程記>(散稿)	*자 景襄/호 臨齋/본관 達城 ○석곡의 스승. ○석곡의 학맥 : 李珥-宋時烈-洪直弼-徐贊奎/韓運聖
20	孫明遠	<答孫明遠>(心書)	
21	孫先生	<湖遊日記>(散稿)	*호 大巖 ○대구서 만남. ○성명미상
22	松阜	<同松阜宿九龍浦>(散稿)	*성명미상
23	宋秉珣	<湖遊日記>(散稿)	*호 心石齋 ○석곡이 황산동에서 만남. ○林憲晦(林奉植의 祖)의 시에 차운해 줌.
24	申鉉穆	<輓詞>(散稿)	*석곡에 대한 만사
25	禹汝七	<湖遊日記>(散稿)	*호 擇窩 ○대구에서 만남.
26	柳善汝	<金剛日記>(散稿)	*柳成龍 후손. ○河回에서 만남.
27	柳震鎬	<金剛日記>(散稿)	*그의 집에서 『典禮通考』, 『儀經傳直解』 등을 열람함.
28	尹顯泰	<地球問答>(奇聞)	
29	李公旼	<祭克齋李先生>(散稿)	*호 克齋
30	李圭脩	<祭從弟圭脩文>(散稿)	*從弟間 ○석곡의 나이 60세에 제문을 지음.
31	李圭永	<與李汝敏>(心書) <石洞書齋>(散稿)	*자 汝敏/호 芝村
32	李圭亨	<石洞書齋>(散稿)	*호 蘭澗
33	李根中	<與嶠南教育會員朴品東李根中等>(散稿)	
34	李能允	<答谷圃李公理氣辨>(心書)	*호 谷圃
35	李道復	<鼎足齋贈厚山>(散稿)	*1862~?
36	李晚求	<西遊路程記>(散稿)	*都事 ○星州에서 만남.
37	李明坡	<輓明坡族丈>(散稿) <祭明坡族丈>(散稿)	
38	李泊鍾	<祭聘丈文(代家兒泊鍾作)>(散稿)	*석곡의 아들

39	李炳國	<同朴<答李朗山>(散稿)>	*자 世卿/호 敬山
40	李存堽	國斌李世卿講論石洞齋>(散稿) <西遊路程記>(散稿) <湖遊日記>(散稿)	*호 朗山 ○곽종석의 제자 ○석곡은 西遊나 湖遊할 때 永川에서 그를 만남.
41	李鍾淳	<素問大要後識>(素問)	*後識 ○석곡의 제자
42	李鍾夏	<金剛日記>(散稿)	*향음주례 토론
43	李鍾翁	<逢杞溪宗人仲純>(散稿) <與仲純暮訪明齋>(散稿)	*자 仲純
44	李浚九	<答李肅明>(心書)	*자 肅明
45	田愚	<西遊路程記>(散稿)	*호 良齋. ○『良齋集』, <答叔玄圭峻> ○柳永善, 『玄谷集』, <李氏圭峻石谷心書辨>
46	鄭萬載	<祭文>(散稿)	*자 亨伯/호 草廬. ○孫晉圭의 제자. 손진규는 석곡의 제자
47	鄭順八	<同鄭順八遊鄭山人莊上>(散稿)	
48	鄭五衛將	<次鄭五衛將晬韻>(散稿)	*성명미상
49	鄭參判	<次鄭參判晬韻>(散稿)	*성명미상
50	鄭致錫	<次鄭致錫龜巖韻>(散稿)	
51	鄭致鎔	<送鄭致鎔說>(心書)	
52	鄭曦容	<地球問答>(奇聞)	
53	曹婉燮	<與曹仲謹文章之遊大巖山亭>(散稿) <翌日阻雨> 附深齋詩(散稿)	*자 仲謹/호 深齋/본관 昌寧
54	趙氏	<祭聘叔母趙氏文>(散稿)	*함안사람 ○석곡이 從媿임.
55	崔鉉遠	<發達城向湖上與崔清道丈共賦>(散稿) <還至達城吟於崔清道莊上>(散稿)	*청도사람
56	許琴坡	<輓琴坡許老丈>(散稿)	*성명미상
57	許薰	<金剛日記>(散稿)	*호 舫山 ○『儀禮』(古本)을 같이 토론함.

4) 부양론의 실증을 통한 의학이론으로의 정립

하나의 고전이 살아있는 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의 실제적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석곡의 부양론은 제자인 이원세를 통해 전해지고, 이원세의 제자들이 소문화회를 일구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석곡 및 이원세의 처방을 바탕으로 진료하는 임상현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이원세의 제자인 김태국은 2년간 모두 62회에 걸쳐 석곡 부양론의 임상응용을 신문지면을 통해 연재한 바 있다.¹⁰⁾ 한의사로서 『황제내경』과 석곡학에 기반한 임상적 유효성을 구체적인 병증을 따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석곡의 처방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박제된 또는 추상적인 고전으로만 존재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임상증례의 학문적 축적이 필요한 것과는 별도로 다양한 의학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부양론적 측면에서 附子 등의 약리적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생약학적 접근, 의학 이론 자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생물학과 의

생명 기반 연구들, 석곡학에 기반을 둔 생물학 연구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학적 연구들, 양방 뿐 만 아니라 기존 한의학적 치료법과의 유효성 비교를 위한 유효성 임상연구, 중국이나 일본 전통의학과의 차이와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철학 및 의학이론의 외국어 번역, 석곡학의 이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다학제 연구 등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추어져 있던 고전이 전통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석곡학 학문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두 개의 중요한 학맥인 ‘남석곡 북제마’는 근대 역동의 한국의학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북쪽(함흥)의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1837~1900)에 대한 연구는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제 스스로의 발전을 개척할 수 있는 위치에

10) 김태국. 『내경』의 임상응용. 민족의학신문. 2011.7.11.~2012.11.15.

이르러 있다면, 남쪽(포항)의 석곡 이규준(1855~1923)에 대한 주목은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동무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은 현대사회에서도 실용화되어 다양한 방면에 응용되고 있으며, 한의학연구원은 사상의학을 특집으로 제학문에서 조망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가예산을 투입한 이제마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였다.¹¹⁾ 그러나 석곡은 여전히 영남 포항 지역의 향토지식인으로서 주목받고 있을 뿐이며,¹²⁾ 제한된 국역과 함께 지역 사회와 대학, 임상학회의 일회성 사업을 통해 명맥이 유지될 뿐 합당한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거론한 ‘남석곡 복제마’란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는 무엇보다 후학들의 학문적 수용이 불균형한 데서 기인하며, 학문의 지역적 편중성에도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석곡에 대한 발굴과 연구가 너무 뒤늦었다는 데에 있다. 『동의보감』과 『황제내경·소문』을 각각 『의감중마』와 『소문대요』로 재구성한 인물에 대한 연구치고 참으로 야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후학들의 분발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번역된 『의감중마』, 『소문대요』, 『석곡산고』, 『석곡심서』, 『포상기문』 등은 한국의학사를 새롭게 되돌아보는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심화된 의학 분야에서의 석곡 연구가 이뤄지고, 모든 석곡의 저서들이 국역되어 철학적 배경 이론 또한 연구자와 임상가들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해본다.

하나의 퍼즐을 맞추기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들이듯이, ‘석곡 이규준’이란 인물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뜻밖에도 우리는 석곡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그가 한국의학사를 넘어서 격동기 한국 고전지성사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함을 보았다. 석곡의 대표적인 의학론인 扶陽論의 陽火一元論, 火爲氣論, 陽常不足陰常有餘論, 心火降水乃升論, 陽反上陰反下說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석곡의 氣一元論, 心論 중심의 心性情同一論을 만들어낸 기억과 교유를 곱씹어야 함도 되짚을 수 있었다. 석곡학이 잊혔던 일개 향토 인물의 고전에서 중요한 한국의학의 전통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균형 있는 한국 근대의학사, 한국고전지성사와 철학사로 발전하여 일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권오민, 남성우, 김진경 옮김. 『국역 석곡산고』.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2009.
2. 안상우, 권오민, 노미주 옮김. 『국역 의감중마』(목판본).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2009.
3. 안상우, 권오민, 김진희 옮김. 『국역 의감중마』(필사본).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2009.
4. 안상우, 이규필, 전병철 옮김. 『국역 석곡심서·포상기문』.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2009.
5. 안상우, 정창현, 백유상, 장우창 옮김. 『국역 소문대요』.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2010.
6. 권오민. 「이규준의 心氣哲學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3.
7. 권오민. 「석곡 이규준의 인간관과 의학론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0(c).
8. 김적. 「이규준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 경희대 석사논문. 1979.
9. 김적. 「한국 최근세 동양의학의 학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1981.
10. 김창건. 「『黃帝素問大要』의 편제에 대한 연구」. 대전대 석사논문. 2007.
11. 오재근. 「조선 의서 수재 藥性歌에 대한 연구」. 대전대 박사논문. 2010.
12. 정수경. 「석곡 부양론의 한방부인과 임상응용을 위한 의사학적 고찰」. 동국대 석사논문. 2006.
13. 강연석, 김남일. 「한국 『黃帝內經』 연구 요약」. 한국의사학회지. 2008;21(1):89-95.
14. 강지은. 「20세기 초 한국 儒者의 시대인식 - 석곡 이규준의 ‘正心’ 해석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문화. 2016;75:269-302.
15. 권오민, 남성우, 안상영, 박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 이규준의 『石谷散稿』 번역연구(2)」.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c);22(4):153-166.
16. 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 이규준의 『石谷散稿』 번역연구(1)」.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b);22(3):161-185.
17. 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이규준의 생

11) Han Chae. 「Multidisciplinary approach on Sasang typology」.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2015;4(1):1-3.

12) 『石谷 李圭峻 先生의 學問과 思想』(제 12회 경북역사인물학술발표회 자료집).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주최. 2014.11.14.

- 애와 사상적 경향]. *한국의사학지*. 2009(a);22(1):7-13.
18. 권오민, 박상영, 한창현, 안상영, 김진희, 안상우. 『醫鑑重磨』의 판본 및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0(a);16(1):1-9.
 19. 권오민, 차웅석, 김남일. 「석곡 이규준의 철학사상과 의학론의 연관성 연구. 『石谷心書』와 扶陽論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지*. 2004(b);17(1):3-29.
 20. 권오민. 「이규준의 심기철학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석곡심서』와 부양론을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4(a);10:15-29.
 21. 김남일. 「Lee Kyu-joon's study on Hwangdineijing in the late Choson era.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6;10(1):12-27.
 22. 김남일. 「한국한의학의 학술유파에 관한 시론. *한국의사학회지*. 2004;17(2):3-25.
 23. 김적, 홍원식. 「이규준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지*. 1978;15.
 24. 김중환. 「이규준의 『素問大要』에 나타난 독창성.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1;5:18-63.
 25. 김중환. 「『소문대요』의 저작동기와 석곡의학의 특질. *대한원전의사학회지*. 2004;17(4):57-63.
 26. 김창건, 윤창렬. 「『黃帝素問大要·題誌』에 대한 연구.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6;15(2):29-38.
 27. 박상영, 한창현, 안상영, 이준규, 권오민. 「석곡 이규준의 『浦上奇聞』과 석곡의 대서양 인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0(b);16(2):65-73.
 28. 성호준. 「儒醫 이규준의 『대학』 이해. *퇴계학논총* 20. 부산퇴계학연구원. 2012(b).
 29. 성호준. 「儒醫 이규준의 『중용』 이해. *동양문화연구* 19.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14.
 30. 성호준. 「조선후기 석곡 이규준의 유학과 의학. *동양철학연구*. 2009;60:109-132.
 31. 성호준. 「조선후기 儒醫 이규준의 心에 관한 연구. *동양문화연구* 9.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12(a).
 32. 신상구. 석곡 이규준의 시문을 통해서 본 학문과 현실 인식. *한민족문화연구*. 2015;51:47-74.
 33. 오재근, 윤창렬. 「本草經校正(필사본)의 서지학적 고찰 및 내용 분석.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b);22(3):321-336.
 34. 오재근, 윤창렬. 「『醫鑑重磨』의 藥性歌에 대한 연구. *소문학회지*. 2009(a);12(1):9-27.
 35. 오재근. 「부양학과, 한국 전통의학 학술 유파의 탄생과 진승. 이규준, 서병오, 이원세 그리고 소문학회. *의학*. 2014;23(1):57-98.
 36. 이준규. 「석곡 이규준의 한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2):17-24.
 37. 張祐彰. 「『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의 陰陽體用觀에 대한 시론.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23(6):73-85.
 38. 錢超塵. 「素問大要」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19(3):432-438.
 39. 황원덕. 「『天元紀大論』 중 上下周紀에 대한 석곡 이규준의 校訂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22(4):177-188.
 40.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扶陽論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6;12(2):15-53.
 41.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부양이론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3):713-723.
 42. 권오민. 「석곡의 의학적 의미. 『석곡 이규준의 현대적 의미와 학제간 모색』.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제1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3.5.28.
 43. 권오민. 「석곡 선생의 유학사상이 의학에 미친 영향. 『석곡 이규준선생의 학문과 사상』(제12회. 경북역사인물학술포럼 자료집).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2014.
 44. 권창호. 「석곡의 지역문화적 의의. 『석곡 이규준의 현대적 의미와 학제간 모색』.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제1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3.5.28.
 45. 금종철. 「석곡심서를 통해 본 석곡의 철학사상. 『석곡 이규준과 21세기 마음의학』.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제2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4.6.3.
 46. 김성진. 「석곡의학에 대한 양생론적 접근. 『석곡 이규준과 21세기 마음의학』.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제2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4.6.3.
 47. 김재효. 「과학으로서의 의학. *구원으로서의 의료*. 『석곡 이규준과 21세기 마음의학』.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제2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4.6.3.
 48. 김창택. 「마음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방법론. 『석곡 이규준과 21세기 마음의학』.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제2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4.6.3.
 49. 김태우. 「석곡 이규준에서부터 소문학회까지. 『석곡 이규준선생의 학문과 사상』(제12회. 경북역사인물학술포럼 자료집).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2014.
 50. 김태국. 「석곡의 임상학적 의의. 『석곡 이규준의 현대적 의미와 학제간 모색』.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 제1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3.5.28.
51. 성호준. 「석곡 이규준의 유학사상」. 『2017 석곡 이규준 재조명 학술 포럼 자료집』. 소문학회. 2017.
 52. 신상구. 「석곡 이규준의 삶과 시세계」. 『석곡 이규준 선생의 학문과 사상』(제12회. 경북역사인물학술발표회 자료집).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2014.
 53. 신상구. 「석곡의 학문탐구와 실천적 지향-匡正을 위한 글쓰기」. 『2017 석곡 이규준 재조명 학술 포럼 자료집』. 소문학회. 2017.
 54. 안상우. 「석곡 이규준의 저술과 학문세계」. 『석곡 이규준 선생의 학문과 사상』(제12회. 경북역사인물학술발표회 자료집).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2014.
 55. 오재근. 「부양학과. 한국 전통의학 학술유파의 탄생과 전승」. 『석곡 이규준과 21세기 마음의학』.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제2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4.6.3.
 56. 이상재.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한의학적 접근과 방법」. 『석곡 이규준과 21세기 마음의학』.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제2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4.6.3.
 57. 이준규. 「석곡저술의 문헌학적 의미」. 『석곡 이규준의 현대적 의미와 학제간 모색』.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제1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13.5.28.
 58.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의학사상에 관한 소고」. 소문학회 학술발표회 발표자료. 2006.
 59. James Flowers. 「Reconfiguring East Asian Modernity」. 『2017 석곡 이규준 재조명 학술 포럼 자료집』. 소문학회. 2017.
 60. 김태국. 『내경』의 임상응용(1~62). 민족의학신문. 2011~2012.
 61. 실학자 이규준의 100년만의 부활 (HCN 창사 16주년 다큐 제작). 경북일보. 2009.12.8.